

'8인 체제' 갖춘 헌재, 尹 탄핵심판 심리 속도낸다

쟁점 추가 정리·심리 일정 조율하고 증인·자료 제출 채택 등 논의 헌재 "9명 체제 복구 조속 추진" 촉구 속 신입 재판관들 바로 투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갖추게 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 해소를 촉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한 조속한 충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진 뒤 두 달 만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였다.

신입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대한 송부촉탁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쟁점과 관련해서는 첫 기일에 헌재가 국회 탄핵 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 사유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 측이 보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중 두어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전제헌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신입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 공보관은 신입 재판관 취임에 따라 탄핵심판의 수명 재판관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는 "사건의 배당과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수명재판관은 주심재판관이 지정될 경우 같은 부 소속 재판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과 관련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 공보관은 "해당 사건은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계 배당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에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법 요건 검토가 권한쟁의의 주체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까지 포함한 논의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통상 적법요건이라 함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본격 업무 돌입

조 "미래 위한 이정표 제시할 것" 정 "희망 찾는 위대한 여정 동행"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신입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1일부터 시작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헌재법상 '7인 심리' 요건을 충족하는 '8인 체제'로 가동에 들어갔다.

조한창 신입 헌법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며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

의 자세로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계선 신입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겠다"면서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비대위 활동 시작...권영세 "국정 안정 총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비대위는 여객기 사고 수습 등 국가적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더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불안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보은 비대위원은 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당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뒤편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전날 "독단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이날은 공개 비판을 자제하며 당정 협력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대립각을 세우거나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비대위가 강조하는 국정 안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원식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여야 합의 따른 것"...공문 공개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여야의 추천 공문을 공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의미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글과 함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각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8월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

한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국회의장은 8월16일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12월 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다"며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은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9일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고 발언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뒤편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